강남구 압구정동



복귀 후 꾸준한 활약 펼친 강호동… '잡동산'과 '보이스킹'으로 돌아온다

〈어린이 직업 소개 예능〉 〈보컬 서바이벌 예능〉

강호동은 현재 유재석, 신동엽 등과 함께 최고 위치에 오른 예능 진행자다. 과장된 몸짓과 남성적인 스타일의 진행으로 시청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낸 것이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많이 활약해 그를 방송인으로만 아는 사람도 있지만 강호동은 원래 씨름선수였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그는 1988년 조흥금고 씨름단에 입단했고 1989년 열린 전국 체급별 장사씨름 대회에서 민속씨름 초대 천하장사였던 이만기를 준결승에서 만나 승리하며 씨름판을 술렁이게 했다. 이후 결승전에서 만난 임용제를 3대 0으로 완벽하게 제압하며 천하장사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씨름계에서 이만기를 잇는 '강호동 시대'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씨름계를 제패한 강호동은 1992년 5월 14일 공식 은퇴한 뒤 이듬해 이경규의 추천으로 MBC 특채 코미디언으로 뽑혀 개그맨으로 변신했다. 이경규는 당시 새로운 인재를 찾던 중 강호동을 발견했다. 강호동은 처음엔 이경규의 제의를 거절했지만 이경규는 포기하지 않고 "네가 스타덤에 오르지 못하면 나도 은퇴하겠다"며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줬다. 그렇게 한국 방송 사상 최초로 씨름선수가 연예계에 데뷔하게 된 것이다.

씨름선수에서 개그맨으로 변신한 강호동은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 동서남북'의 한 코너인 '소나기'에서 "행님아~"라는 유행어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후 2002년 KBS2에서 방송된 '슈퍼TV 일요일은 즐거워'에서 유재석과 '공포의 쿵쿵따'를 진행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그 뒤 MBC ' 강호동의 천생연분', SBS '야심만만' 'X맨을 찾아라' 등에서 메인 MC를 맡아 주가를 더욱 높였고 SBS '스타킹', KBS2 '1박 2일' 등을 통해 승승장구했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유재석과 양강 구도를 이루며 이른바 예능계 '유강라인'을 구축했다.

강호동은 '2007 SBS 방송연예대상', '2008 KBS 연예대상' '2008 MBC 방송연예대상' '2009 KBS 연예대상' '2010 SBS 연예대상' 등에서 대상을 여러 번 수상하며 예능계에서도 최고 위치에 올랐다.

그러나 2011년 8월 그는 한 시민의 고발로 세금과소납부 논란이 일며 조세포탈 혐의를 받았다. 이보다 앞선 5월 국세청은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해 수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강호동은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고 자숙하는 의미에서 '1박 2일' 등 출연하고 있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잠정 은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이후 국세청의 고발이 없어 규정에 따라 이 사건은 각하처분을 받았으며 강호동은 1년여 만에 SBS '스타킹'으로 방송에 복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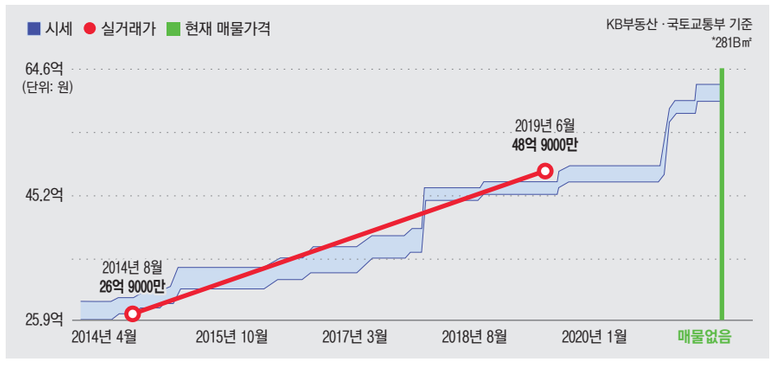
대림아크로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56

강호동은 복귀 후 '신서유기' '아는 형님' '국가대표' '한끼줍쇼' '대탈출' '호동과 바다' 등 여러 프로그램에서 활약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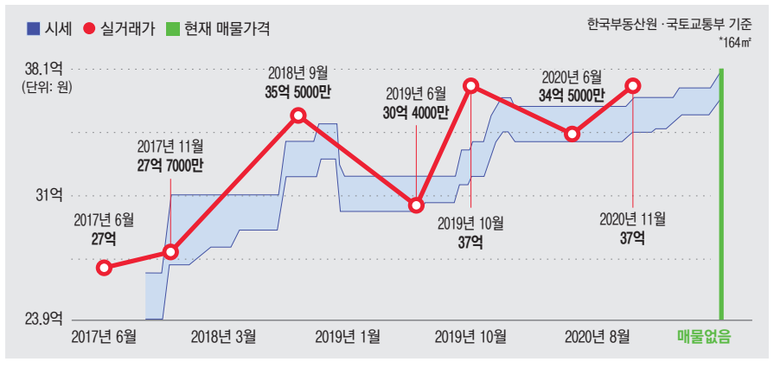
한편 강호동의 활약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먼저 8일 목요일 밤 9시 첫 방송 되는 새 예능 프로그램 '잡동산'에서 시청자들과 만난다. 채널S의 개국 프로그램인 '잡동산'은 강호동이 어린이들과 함께 각 직업(job)에 대해 알아보는 직업 부동산 콘셉트의 예능 프로그램이다.

이어 13일 화요일 밤 9시 50분 첫 방송 되는 '보이스킹'에서 진행을 맡았다. '보이스킹'은 숨겨진 남자 음악 고수를 찾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실력파 보컬들, 은둔 고수들의 반란을 예고해 기대를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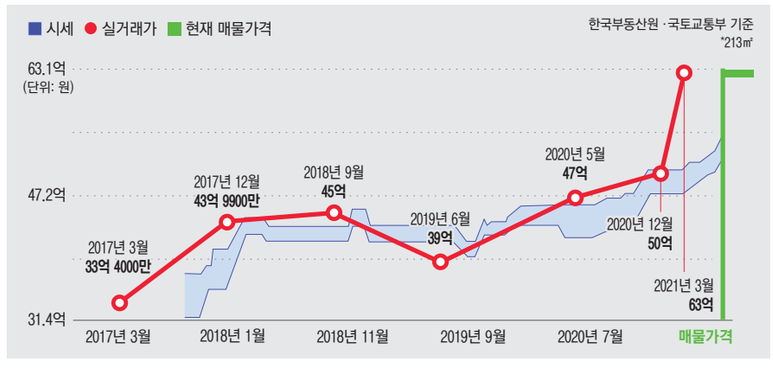
대림아크로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56



압구정현대10차아파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36



압구정현대1,2차아파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69-1



김희애 현)탤런트, 영화배우



김희애는 중앙대학교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의류 CF모델로 데뷔해 연예계 활동에 발을 들였다. 이듬해 영화 '스무해 첫째날'에 출연하면서 스크린에 데뷔한 김희애는 1986년 KBS 드라마 '여심'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돼 당시 스무 살의 신인임에도 한 여인의 인생을 10대부터 60대까지 훌륭히 소화하며 스타로 급부상했다. 이후 드라마 '산 너머 저쪽' '분노의 왕국' '아들과 딸' '폭풍의 계절' '연애의 기초' '하나뿐인 당신' '완전한 사랑' '부모님 전상서' '내 남자의 여자' '밀회' 등과 영화 '불의 회상' '영웅 돌아오다' '우아한 거짓말' '사라진 밤' '윤희에게' 등에 출연하면서 최고의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아울러 대표적인 동안 여배우로 불리며 대중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엄정근 현)하이스틸 대표이사



엄정근 하이스틸 대표이사는 광운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2014년 타계한 철강업계 1세대 기업인 고(故) 엄춘보 한일철강 명예회장의 삼남이기도 하다. 엄정근 대표는 1979년 한일철강에 입사해 2003년 한일철강에서 인적분할된 강판 제조사 하이스틸 대표이사직을 맡았다. 약 40년간 철강업계에서 종사해오며 국내 철강산업의 발전과 함께 해왔다. 부친이 일군 명성을 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2013년 '제14회 철의 날'에 철강산업에 기여한 공로로 '은탑산업훈장'을 받기도 했다. 엄 대표는 이듬해 철강협회 강관협의회 제6대 회장 선임됐다. 그는 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며 국내 강관업계의 상호 협력의 틀을 강화해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신홍 현)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이사



주신홍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이사는 고(故) 주진규 푸른그룹 회장의 아들이며 고 구평회 E1 명예회장의 외손자다. 그는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2011년 이트레이드증권(현 이베스트투자증권)에 입사해 투자전략 및 스몰캡 애널리스트 및 채권운용팀 매니저로 2년간 근무했다. 이후 더 깊게 경영을 공부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SMBA)에서 석사 과정을 밟았다. 그는 2014년 3월 푸른저축은행 감리부 과장으로 입사해 자산운용팀장으로 일하다 이듬해 10월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을 설립했다. 주 대표는 신영증권 APEX패밀리오피스 자금을 지속 유치하고 있으며 지난해 '푸른멀티'와 '푸른야나두' 등 신규펀드에 신영증권 고객자금을 유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한신공영 '율동지구 한신더휴' 이달 분양

울산광역시 북구

율동지구 한신더휴 투시도 한신공영

한신공영은 울산 북구 율동 공공주택지구에서 '율동지구 한신더휴'를 4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15개 동이며 블록별로는 △B1블록 239가구 △B2블록 436가구 △C2블록 407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84㎡ 1020가구 △99㎡ 62가구 등으로 구성되며, 총 1082가구 규모이다.

여기에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작은도서관·맘스스테이션 등 남녀노소 모두 이용 가능한 주민공동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교통편의 경우 단지 인근에 동해선 태화강역과 울산고속버스터미널, 울산공항이 위치하고 울산IC, 장검IC를 통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기 쉽다. 향후 동해선과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완공되면 부산과 서울 접근성이 더욱 좋아진다.

또 초등학교(예정부지)와 효정중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가까워 교육 여건을 갖췄다. 생활 인프라 역시 뛰어나다. 롯데마트, 코스트코, CGV, 롯데백화점, 뉴코아 아울렛 등의 편의시설이 밀집해 이용하기 편리하다.

더불어 직주근접 특징도 갖췄다. 단지 인근 현대차를 비롯한 모듈화 일반산업단지가 가깝고 매곡일반, 중산일반, 울산테크노파크등을 쉽게 오갈 수 있다. 아울러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일원 69만여㎡에 '일렉드로겐오토밸리' 산업단지가 지난해 말 준공됐다.

분양관계자에 따르면 "율동지구 한신더휴는 울산에서 보기 드문 공공주택지구에 들어서는 브랜드 대단지인데다, 각종 주거 인프라를 가깝게 누릴 수 있는 원스톱 입지에 들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율동지구 한신더휴의 견본주택은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271-5번지에 위치한다.

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 적극 홍보

창원시 전경 창원시청

경상남도 창원시

2020년 서울·수도권발 전국적 아파트 가격상승 분위기에 창원시도 의창구와 성산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치솟아 작년 12월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다 보니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 창원시 여러 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경남·부산·울산 지역에 거주하면서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 세대주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또 청약통장이나 청약 순위가 필요 없다는 것과 사업추진 구조가 토지소유권의 15%만 확보하면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인가 이후 85%에 달하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만 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창원시 주택정책과는 최근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문의가 늘어나고 있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홍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먼저 지역주택조합원은 가입 때부터 아파트 입주 시까지 자격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데 도중에 조합원 자격상실, 제명되거나 탈퇴하는 경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조합 가입 후에는 사업 지연, 추가 분담금 발생 등의 사유로 탈퇴를 원해도 쉽게 탈퇴할 수 없다.

조합원 모집 시에는 분양가격이나 시공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조합원 모집 이후 조합원 총회를 거쳐야 시공사가 결정되고 분양가격은 사업계획 승인 후 확정되므로 과장 광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사업추진 도중 토지가격이나 공사비 변동 등으로 사업비가 상승해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토지소유권 확보 과정이나 사업추진과정에서 내·외부 분쟁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이러한 점도 조합 가입 시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조합 가입 시에는 자금관리의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예금주가 신탁사로 결정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최재안 창원시 주택정책과장은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 개인에게 돌아가므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조합 가입 전 토지소유권 확보 여부, 사업 여건, 조합 추진위원회나 업무대행사의 신뢰성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